

사무엘상 4.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삼상 3장 1-4 장 1 절 a.)

들어가기

사무엘상 3 장은 특별한 방법,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으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통해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항상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 (1-9 절)

1)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는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1 절)

-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여’ ->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의 시대!
-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없던 시대!

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고,

민 12:6,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② 외치는 소리는 많으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없었다는 사실!

■ 그럼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 당시 시대가 사사 시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좋은 대로 행하며 살던 시대였기 때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사들을 자신이 기록한 것은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 장 17 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우고 깨달아 인생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져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2 절)

-> 당시 시대의 상황과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 주어야 할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 => 영적 암흑의 시대였다는 것!

3) 그때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3 절)

■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 희망의 불씨를 살려 놓으시는 하나님을 발견!

■ ‘여호와와의 궤’ 있는 성전에서 잠들어 있던 사무엘

-> 여호와와의 궤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심을 상징하는 성물!

->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궤 곁에 누었다는 것! = 곧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임재 하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상징!

4)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4-9 절)

■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한 환상이 아닌 실제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 3 번씩이나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그 음성은 은혜를 주실 때까지, 다른 말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곧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런데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7 절)

①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그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무엘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②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과 선지자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성도는 언제나 지식적인 앎을 넘어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깨어있어 날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민감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 제사장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 하나님은 인간의 지위와 외모, 육체의 나이에 따라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9 절)

-> 응답하는 이의 자세 =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_____!’

->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고 자세는 어떠한지 돌아보는 성도가 됩시다!

2. 하나님은 친히 사무엘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10 절)

10 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_____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3.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에 대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11-15 절)

1)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계시(11-14 절)

①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실 것 - 그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두 귀가 울릴 것!
-> 곧 죄로 양심이 무디어져 있던 백성들이 놀라며 각성하게 될 것이란 말씀

② 엘리 제사장의 죄악에 대해
->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는 행동을 하였으나 금하지 않았음!
-> 이것은 아버지로써의 의무 (신 21:18-21)와 제사장과 재판장으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신 17:12)
-> 이 사실을 엘리 제사장 스스로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다는 것!

③ 그러므로 엘리의 집의 죄악은 어떤 제물이나 예물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 계시!

2)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사무엘은 이 사실을 엘리 제사장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15 절)

■ Why?

4.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16-18 절)

1)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 주었습니다. (17 절)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 이것은 아마도 그가 제사장으로써 사무엘에게 마지막으로 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2)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통해 전해 들은 모든 말씀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위대함이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을 깨닫고 인정함! (어린 제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인정한다? 결코 쉽지 않을 것!)
- ② 더구나 자신을 향한 심판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
 - 충분히 변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

곧 엘리는 악한 인간이었을지는 몰라도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란 사실을 믿는다면, 그 분이 내리시는 그 어떤 결정도 주저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함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비위에 맞도록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기를 원한다!’

5.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무엘과 함께 하시며,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게 하셨습니다. (19-21 절)

- 사무엘이 전한 모든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하심
- 그로 인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이 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됨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심은 참으로 큰 복이란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5 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과 함께하신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6. 오늘 내용 중에 새로 깨달은 것이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